

곡성 용계 주민 “옥과천 재해예방 원안 추진” 촉구

하천재해 예방 위해 2012년 계획 수립 전남도 올해 변경 계획안 제시하자 주민들 “마을보호수 벌채 우려” 반발 전남도 “보호수 훼손없이 사업 이행”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옥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놓고 원계획이 아닌 변경안이 제시돼 곡성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변경안으로 추진될 경우 수령 200년 내외의 느티나무들이 잘려나가고 휴식공간인 마을 정자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보호수를 존치하고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안으로 공사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30일 곡성군 옥과면 조양리 용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옥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이 미뤄져 오다 2년 전 성덕저수지 댐 높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천재해가 우려되자 공사 개시를 앞두고 전남도가 지난해 주민설명



곡성 용계마을 옥과천 인근에 위치한 수령 200년 보호수. 곡성군 제공

회에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변경안이 제시되자 용계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변경안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경안이 추진될 경우 보호수를 벌채 또는 옮겨 심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어 보호수를 보호하면서 옥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다.

용계마을은 함양여씨 200년 집성촌으로 마을 앞 옥과천에는 아름답고 느티나무가 수십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보호수도 들어 있다.

한말의 선비였던 여창현 선생을 기리는 삼구정과 중

가 등이 보존되고 있는 전통마을로 삼구정에는 선비들이 삼구정을 비롯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기 위해 쓴 글들이 편액으로 걸려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마을주민들은 최근 곡성군청을 향의 방문해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고,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 80%가 연대 서명해 제출한 변경 불가 의견을 전남도에 제출했다”며 “전남도의 확정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곡성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수를 존치하면서 옥과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곡성군 오산면사무소, 9월·용계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 이어 곡성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서제출을 지난달 24일 곡성군에 요청했고 10월10일과 14일 2회에 걸쳐 보호수 등을 보호하며 재해예방을 시행하는 당초 계획 이행을 요청하는 종합의견을 최종 접수받았다”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를 옮겨심거나 자르는 등 훼손 없이 보호해 나가며 옥과천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중이다”고 말했다.

최동환·곡성=김대영 기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공개강좌 나주시보건소, 학부모 대상

나주시보건소(소장 강동렬)는 오는 11월 2일에 KPX 전력거래소에서 학부모 대상 공개강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자녀 바로 알기’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를 맡은 윤우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밝은마음병원의 대표원장이자 자녀 양육과 부모 심리 교육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이다.

윤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자녀의 발달 단계별 심리적 변화와 이에 적합한 양육법을 설명하고 부모들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1월 1일까지 선착순 300명으로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양파 적기 병해충 관리 당부 함평군, 습해·병해충 등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양파 육묘상의 시들음 증상이 확산되고 있어 농가의 양파 생산을 위해 습해관리 및 병해충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파 생산량에 큰 피해를 주는 노균병은 육묘상에서부터 방제가 필요하다.

지역 중만생종 양파 적기 정식기인 11월 상순 이전까지 육묘상에서 적용약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육묘 전기간 동안에 4회에서 5회 살포하는 것이 좋다. 정식 이후에 총 2번의 약제살포를 통한 집중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과 내년 1월은 평년보다 따뜻한 대신 12월 강추위가 올 것으로 보여 저온 피해 예방이 주의해야 한다.

양파는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 월동 중 동해 및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기에 정식해야 수확량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양파 정식은 평균기온이 15도인 때가 적당하며 함평 지역에서는 조생종은 10월 하순에, 중만생종은 11월 상순에 정식하면 좋다.

부득이하게 11월 중순 이후 정식하는 양파는 부직포나 비닐 2중 피복으로 서릿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의 대표 농산물인 양파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양파 재배 기계화 확산과 현장 중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인재육성기금 교육시책 지원 확대 영광군, 성취도 상승 일환

영광군은 지난 24일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과 교육시책 지원 사업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인재육성기금은 장학금 3억원, 교육시책 지원사업 3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교육시책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1억 7000만원에서 2025년 3억원으로 증액하여 영광군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300억원을 목표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해왔다”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들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든든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책과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운 기자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 화순군, 미신청자 대상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 공익수당 60만원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17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29일부터 8889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개시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 417명을 합하면 총 9306명에게 지급된다.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원들이 지난 28일 관내 취약계층 2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엮다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취약계층 대상 주거개선 활동

함평군 엮다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서정수)가 지난 28일 관내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 대원들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수 낚은 창호를 철거하고 단열 성능이 우수한 새 창호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

다. 농번기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엮다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이번 봉사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힘

쓰고 있다.

서정수 대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동참해 준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 파크골프장, 무료 시범운영 연말까지 연장

이용객 친화적 운영

화순군은 30일 올해 말까지 화순 파크골프장 무료 시범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이유는 △화순 파크골프장의 홍보를 극대화 △이용객 친화적인 운영 △편의성을 갖춘 시설 환경 더욱 철저히 보완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무료 시범운영 기간의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로 나뉘며 1주일 전 10시부터 오전·



오후로 나뉘 온라인 예약으로 400명(100팀), 현장 접수로 400명(100팀)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화순파크골프장’을 포털 검색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은 초기 잔디 활착 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화순파크골프장은 정규 코스 81홀과 별도의 연습 코스 6홀을 포함해 총 87홀, 10개 코스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프연맹 두 곳의 공인 구장 인증을 진행 중이다. 인증 후 2025년부터 다양한 파크골프 대회와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무료 시범운영을 연장하여 화순 파크골프장의 운영과 시설 전반에서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이 즐겁고 편리하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구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화순군의 관광 명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